

“濟州馬”의 생물문화적 관점을 위하여

전 경수(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

말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의 융합적인 문제의식을 추적하는 것이 말의 생물문화적(biocultural) 연구라고 생각된다. 말이란 동물의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말의 질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고, 말의 질병에 관한 논의는 말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말과 관련된 제 문제를 생물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물문화적인 관점을 전제로 할 때, 말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문화에 관한 논의가 심도를 더 할 수 있고, 경마용 말의 훈련과 생식에 관한 문제가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말과 관련된 생물학적 연구와 문화적인 연구가 결합된 관점이 논의의 시발점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후일의 연구방향과 진행에 괄목할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말과 관련된 역사와 생물학적인 문제들은 지구상의 말과 관련된 제 문제들과 분리불가능한 주제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말은 동아시아의 말이라는 범주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명분이 분명하고, 동아시아의 말이라는 범주는 전지구적인 분포의 말과 관련된 제 문제들로부터 연유된 논의를 전제로 한다.

말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는 고고학적인 발굴로부터 발견되는데, 그 사례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북경 주구점에서 채집된 馬骨이며, 당시 주구점 사람들은 야생마를 사냥하여 식량으로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주구점 사람들이 불을 사용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말고기를 불에 구어 먹었음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말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식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식량과 관련된 산업의 초기형태를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문화의 문제라는 틀 속에 자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의 가축화 역사는 시리아 북부의 유프라테스 강 주변인 ‘아부 후레이’라 유적이며, 기원전 5000년 즉 지금부터 약 7천 년 전에 가축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랍말인 ‘알-캄싸’는 기원전 2500년 즉 지금부터 4천5백 년 전 정도의 역사를 보이는 베두인

(‘바다위’가 어원, 그 뜻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들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초원야생마로 유명한 프르제발스키(prezewalski)는 키르기스스탄의 프르제발스크州를 고향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송쿨이 현재로는 가장 말과 말 중심의 생활이 번성한 곳으로 남아 있다. 송쿨은 해발 3천 미터에 위치한 곳으로서 5월말부터 8월까지 移牧이 시행되고, 5월말 이목시작의 시점에서 채취하는 말의 初乳는 키르키즈 사람들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다. 초원의 유르타에서 이목생활을 하는 키르키즈 사람들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馬文化複合(horse culture complex)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중대한 인류학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가 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뒤, 말과 관련된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해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三趾馬-프르제발스키-가축화된 말-현대재래마의 순으로 진화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자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만리장성의 팔달령에 위치한 <中國馬文化博物館>과 운남성 상운현 샹그릴라에 있는 <馬房文化博物館>도 좋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제주도에 관한 논의를 할 때, 13세기 이전의 경우에는 “濟州”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선사시대에 등장하였던 말을 “濟州馬”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최소한도 “耽羅馬”라는 단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신화시대에 제주도에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을라신화’의 내용 속이다. 그것이 15세기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지만, 내용은 신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생각되는 말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탐라마의 혈통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토종마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는 선사인류학적인 발굴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역사시대에 이어지는 탐라의 활동으로부터 우리는 탐라에서의 말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 기원 663년 8월 白江(白村江) 전투에 등장하였던 일본군의 해상진로에 탐라가 존재하였음은 분명하고, 탐라의 대일 관계를 고려할 때, 백강 전투에 참전하였던 일본군과의 관계,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의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피난민들의 渡日 과정에 기여한 탐라의 역할도 배제할 수가 없다. 계급적 존재가 포함된 대규모의 집단이 이동할 경우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말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13세기 후반 원나라(몽골)가 일본을 침공하려는 준비를 하였을 때, 탐라는 군사적인 전진기지로서 한 몫을 단단히 하였다. 당시 南宋의 江南軍 10만명이 대거 일본으로 진격하는 길목에 탐라가 존재하였고, 몽골 군대의 군마들이 탐라에 포진하고 있었음을 상기하면, 탐라는 중국의 강남으로부터 운송된 말과 몽골로부터 온 말 그리고 토종 탐라마의 세 가지 말이 최소한도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후일 제주마를 언급하는 부분의 전제조건으로서 등장하는 위의 얘기들은 정보가 부족한 내용이긴 하지만, 허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를 동원하여 논증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준의 논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탐라는 몽골의 간섭으로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도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草地들은 모두 몽골의 간섭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군마를 양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탐라에 대한 몽골의 관심은 대규모의 목장을 필요로 하였고, 그것을 위한 준비로서의 초지 조성이 긴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식물분포상으로 언급한다면, 제주도는 常綠闊葉樹林帶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초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지극히 무리다. 따라서 제주도의 상록활엽수림은 몽골 군대의 목장 조성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몽골은 제주도의 목장 조성을 위해서 거의 전도에 걸쳐서 火入을 통한 벌목을 감행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다. 환언하면, 제주도의 현재 경관은 몽골의 군마양성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규모 숫자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생물학적 변형이 몽골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현재 거의 乾川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강들은 원래 건천이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제주도의 목장 조성 과정에서 상록활엽수림의 숲이 사라지면서, 숲의 기능을 상실한 한라산으로 인하여 강은 모두 건천으로 변형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컴퓨터 그래픽 상으로 이 부분을 복원해보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록활엽수림으로 가득한 제주도와 현재의 제주도를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변형으로 인한 제주도 전체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단순히 목장의 조성을 위하여 초지가 등장하였다는 설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록활엽수림대가 초지로 변형되면서 상실된 문제는 생물학적인 현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토양을 덮고 있는 수림의 상실로 인하여 토양유실과 관련된 지질학적 문제도 심각하게 전개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제주도 육지부의 삼림이 사라지면서, 그 피해는 해양으로 연동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삼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목장 조성을 위한 초지가 등장한 제주도는 한마디로 생태계황폐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天平十年周防国正税帳」의 表에 나오는 ‘耽羅方脯’에 대한 해석이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탐라방포’는 당시 한라산록에서 포획된 사슴이나 멧돼지의 육포를 이룸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탐라가 외부로 보내는 교역품의 일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 738년 10월의 얘기이다(森公章 1985)。 탐라의 숲이 그만큼 풍족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다.

일본의 궁정악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자리를 잡았던 “耽羅樂”이라는 것도 탐라인들의 유복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 작은 섬나라 탐라가 백제와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중국의 사신대열에 선택될 수 있었던 점이나 해상왕국으로서 대국들과 교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풍족한 생태계의 은혜였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한반도의 사서에는 희귀하게 등장하는 “耽羅”라는 지명이 <日本書紀>에는 23회나 등장하는 것은 탐라의 위상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다. <三國史記>의 “三國”의 구도를 위하여 金富軾이 지워버린 “耽羅”는 <日本書紀>에 살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고려와 몽골에 의해서 역사의 전면부에서 사라진 탐라의 면모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탐라에 몽골 지배에 의한 군마 양성의 임무가 주어지면서, 탐라는 풍족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빈한한 곳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복한 탐라생태사에 대격변이 전개된 것이 군사 목적의 목마장 건설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탐라로부터 군마 동원을 위한 변경의 식민지로 전략한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풍족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생산이 가능한 예술적 감각도 말을 앞세운 군사주의의 전횡으로 빈한한 목동과 마부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진 탐라인의 흔적이 후세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제주도에 군마 양성의 목표가 주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군마가 들어오기 이전, 제주도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영위하였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탐라인의 삶에 대한 복구가 가능한 과제들을 풀어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지동이전의 마한조 끝에 붙어 있는 탐라인의 삶에 대한 그림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독립적인 언어를 유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언어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탐라인의 삶이 타

지역으로부터 독립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탐라 천년과 제주 천년의 의미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의 첫단추가 ‘탐라마’에 대한 상념과 ‘탐라마’를 배경으로 하는 생태계의 복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록활엽수림대 생태계로부터 초지생태계로의 전환이라는 변혁을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산의 대응짜이 되는 바다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산과 바다는 생태계라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의 상호 대응짜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인류학자의 역할은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適所置換(niche displacement)에 관한 문화적 측면을 복원해야할 임무가 주어진다. 초지생태계에 등장한 국가권력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말과 연동된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역으로 상록활엽수림대의 기술이 초지대의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삶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말과 관련된 군사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탐라인의 삶에 전혀 생소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군사조직으로서의 말이라는 문제가 탐라인들의 삶에 끼친 사회학적 영향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이 역사사회적인 지식사회학의 작업일 것이다. 川藏(사천과 티벳)의 차마고도와 차마호시에서 발전된 교역은 장족 말과 한족 차의 교환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상호 보충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共生하는 방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사회조직이 교역이라는 차원과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제주마”의 존재가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조직적인 구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마로서의 제주마가 육지로 이동할 때, 필연적으로 탐진나무를 거치게 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강진군의 마량이라는 지역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마량의 농가 담에서 발견되는 흑색의 현무암이 그러한 교역의 증거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활의 주무대에 강제적으로 등장한 말의 존재가 탐라인들의 사상과 인식체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추적은 관념이 세계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팔마두나 육마두 등으로 표현되는 티벳불교의 馬頭明王이 등장하는 것은 말과 관련된 신앙의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일본 나라현 타하라모토초 이마자토과에서는 살아있는 말을 사용한 기우제의 사례를 보여준다. 祈雨에는 黑馬, 祈請을 위해서는 白馬를 사용하였다는 전설과 기록이 관념문화의 제주마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神社

의 繪馬가 일본인들의 사상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제주마와 관련된 제주도 사람들의 사상과 인식체계에 자리잡은 마문화에 대한 분석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비하의 주체가 될 뿐이다. “사람=서울 vs 말=제주”라는 구도는 지역적인 특화를 의미하는 속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서울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사람과 말이 있다는 표현이다. 즉 말이 제주도라는 지역의 자산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馬文化複합에 관련된 역사와 사회학적 조건 그리고 생태학적 천이과정에 대한 천착이 그 속담의 진의를 풀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말과 관련된 산업의 얘기가 가능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수순이 있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문헌

森公章

1985. 6 “耽羅方脯考:八世紀、日本と耽羅の ‘通交’ ”, 続日本紀研究 239.